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4호 【루게 제 24567호】 주제 103 (2014)년 6월 3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으로 명작창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우리의 문화예술인들이 비상한 각오와 신심에 넘쳐 새로운 출발전지를 차지하고 명작창작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이어 문화예술인들의 대외화를 마친후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높은 연단에서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을 내세워 주시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문화예술창작활동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나갈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기대가 어그러졌다.

은 대외화를 감동과 흥분으로 설레이게 한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토론은 날이 갈수록 깊은 감명을 안겨주며 커다란 진인력을 발휘하고있다.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이 들고나가는 한 전투적구호이다. 당의 부름따라 모란봉악단의 힘찬 음악포성, 노래포성, 명작폭포로 화답하며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주체문화예술의 최전성기로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화예술부문의 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예술창작활동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모란봉악단은 조직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다.

예술단체의 력사를 보아도 그렇고 예술인들의 인성에도 2년이란 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모란봉악단에서는 이들은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자리잡고있으며 막대한 노래는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의 생활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되고있다. 모란봉악단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예술창조의 최고경지를 개척하며 온 나라를 부글부글 끓게 하는 음악포성, 노래폭탄을 험하게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악단의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창조기풍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도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똑같은 동시대인이다. 남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비상한 당성, 혁명성, 인민성으로 일관된 열정적인 창조기풍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이다. 당이 준 과업을 열매를 맺어준다는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실천하여야 하는 결사투쟁의 정신, 기성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안목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내는 창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실력진을 벌려나가는 집단주의적경쟁열풍, 이것이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조기풍이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있다. 1970년대와 같이 문화예술전반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우리 문화예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그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려는 것이 우리 당의 덕담없는 결심이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은 주체문화예술 건설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적인 창조기풍이며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문예인들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전투적인 투쟁기풍이다. 우리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지시를 높이 받들고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은 인민들이 좋아하고 열렬히 공감하는 시대적명작들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훌륭한 귀감이다.

문화예술의 진정한 가치와 사명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있다. 인민을 외면하고 인위어 공감하지 않는 문화예술은 우리 혁명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오늘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적요구는 비합박이 높아졌다.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고 자기들의 투쟁과 생활의 길목마다 펼쳐 수 있는 참신한 문화예술작품들을 인민이 기다리고있다. 지금이야말로 크나큰 과부와 꿈을 안고 더 좋은 메일을 위하여 과감히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벅찬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문화예술작품, 천만군민에게 필수의 신심과 활력을 부여하며 시대를 선도하고 떠밀어나가는 명작들을 펴방망이 들어야 할 때이다.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예술창조활동에서 내세우고있는 근본원칙은 인민의 지향과 요구, 감정정서에 맞는 명작들을 만드는것이다. 악단이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는 길도, 인민이 사랑하는 악단이 되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신조에는 드림이 없다. 공연을 할 때마다 판중의 눈빛과 거동, 박수소리까지 마음을 기울이고 일터에서, 거리와 마을에서 울려나오는 군중의 목소리를 하나도 흘려들지 않으며 인민이 조금이라도 싫어하는것과는 주저없이 결별하는 창조창조기풍을 지니고있기에 그들은 하나의 노래를 편곡하고 공연의 한 종목을 준비해도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친근하게 가닿도록, 대중의 심금을 푼 울려오는 시대의 명작으로 되도록 하고있는것이다.

인민을 흥분시키고 격동시키며 인민들속에서 애되고 널리 불려오는 작품, 오늘만이 아니라 메일을 후대들이 자랑하며 길이 전해가는 작품이 우리 당이 바라는 명작이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적극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갈 때 우리 문화예술은 인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인민의 문화예술로 더욱 자랑될것이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은 최단기간에 우리의 문화예술이 세계를 압도하며 주체의 사회주의 문명강국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이다.

문화예술은 나라의 권위와 명문수준을 높이고 인민들에게 민족적자긍과 자부심을 안겨주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은 세계가 우러르는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우리의 문화예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문화예술전반을 하루빨리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워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21세기의 문예부흥기로 빛내어나가자는 것이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이고 시대와 력사의 뜻이다.

모란봉악단은 세계를 놀라우는 눈부신 명작창작성과로 날을 따라 개화발전하는 주체문화예술의 참모습을 힘있게 과시해나가고 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조진의 명작들을 창조하고 세계적으로 좋다고 하는것들도 우리 식으로 특색있게 형성한 자신만의 비평가와 투지를 안고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보여준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은 새사람들을 경탄시키고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자기 땅에 발을 든듯히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명마루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약동하는 기상의 힘있는 분출이다.

주체혁명의 새시대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과 같이 세계를 압도해나갈수 있는 문예인들을 부르고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처럼 한 편편한 작품을 시대의 기념비적결작, 세계적인 명작으로 빛내어나갈 때 주체문화예술의 찬란한 개화기가 펼쳐지게 될것이다.

새로운 문화예술혁명의 기관지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모란봉악단과 같은 국보적인 예술단체를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문화예술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철저히 구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해나가기 바란다.

창작가, 예술인들의 사상관점에서부터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모란봉악단이 인민의 사랑과 신뢰속에 높은 명성을 떨쳐가고있는것은 결코 예술적기량이 높아서만이 아니다. 나이도 어리고 창조년한과 경험도 적은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이 오늘과 같은 높이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었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시대에 심장의 박동을 맞고 우리 당의 사상이 만장악단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심신을 다해가려는 사상적각오가 투철하기때문이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모란봉악단의 수평적사용위정신, 결사투쟁의 혁명적기풍을 본받아 사상관점에서부터 완전히 때뱃을 하여야 한다. 주저없이 우는소리나 하고 조건타만만 하는 패배주의적인 관점과 일본색을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처럼 명작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받들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열백백을 패고 수백백을 고쳐서라도 완전무결한 작품을 내놓고야만 결사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한편의 노래와 가사도 당에서 의도하고 시대와 인민이 바라는 명작으로 만들어내려는 비상한 열의가 창작가, 예술인들의 가슴마다에 꼭 차넣어야 한다.

목표를 높이 내세우고 끝까지 점령해나가는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모란봉악단의 모든 성원들은 끊임없이 새것을 지향하는 진취적인 창작태도와 불굴의 개척정신, 우리 식의 우월한 예술로 세계를 들었다놓았다 하는 강한 자존심을 지니고 일본색을 버리고 우리 창작창조활동의 기백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모란봉악단의 공연들은 그 어느것이 나 완전히 새롭게 독특하며 사람들과의 흥분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모든 작품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쁨을 드리고 군대와 인민의 사랑을 받을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창조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같이 실천하여야 한다. 언제나 높은 정적적안목과 창조적정신으로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의미있는 중저를 찾아내고 예술적으로 특색있게 형성하여야 한다. 한편 세운 목표와 한때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부단히 새 기준을 창조하고 돌파하여 더 높은 고지를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힘차게 전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집단적혁신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건설에 필요한 근간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명령에 떨쳐나선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의 로동자들이 세멘트생산에서 편일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2, 3호성로에 단부하를 걸어 세멘트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동시에 1호성로에 열대보수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의 자랑한 성과는 당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건설의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나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

가고있는 건설자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정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에 건설을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건설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세멘트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조직적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밑에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괄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편수들이 대며 로동자, 기술자들을 위한 창조적으로 불려일으키고있다. 특히 당선일군들은 생산현장들에 나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사상과 정신에 맞게 선전선동력량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세멘트생산과 1호성로에 열대보수진행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로동자들을 적극 고무추진하고있다.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일군들은 세멘트생산비들의 만가지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에 깊이 들어가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에 합쳐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원로직장, 조합원로직장, 소성직장, 크랭크수송직장, 세멘트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세멘트생산에 당을 받들어가 일임하고 협동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매일 자기들앞에 맡겨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5월 세멘트생산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연합기업소당부에서는 원로, 자재보장대책을 앞세우며 생산정상의 불길에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1호성로에 열대보수를 앞당겨 끝내는데서 원로직장이 뛰어났다. 5월초 대보수진행에 진입한 보수직장, 소성직장, 축로중대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중진간결로 5개월을 실히 걸린다는 1호성로에 열대보수를 25일만에 해체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킨다

레성강발전소건설장에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갈 결심을 마음속으로 굳건히 품고있는 레성강발전소건설자들이 발전소건설전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따기 마련된 발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새로운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발전소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도당위원회와 지도밑에 레성강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끝내어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 불려하는 마음을 안고 조직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키고있다.

건설지휘부의 일군들과 건설자, 돌격대원들은 마감단계에 이른 4호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끝내는 한편 3호발전소건설을 올해중으로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제길 드높은 열의와 각오를 가지고 8 200여의 세멘트를 더 생산하였다.

금 특파기자 리혁철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세계 벌려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키고있다. 하여 대대에서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백mm의 장성공사를 며칠동안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호발전소의 조종교보생산을 맡아하고있는 청년돌격대의 일군들과 전투원들도 공사량에 따르는 구체적인 전투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강성수력건설연합기업소 설비조립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물물조립과 발전기조립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건설지휘부에서는 긴장한 자재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단위들에서 대장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생산하기 위한 기지들을 꾸려놓고 적극 리용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다. 하여 철근생산기지와 석회생산기지가 꾸려져 공사과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금 특파기자 김철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금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초식품일뿐 아니라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널리 쓰이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리었던 원산제염소에서 소금생산성과가 확대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첫 소금생산은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룩 일군들과 제염공들, 도안의 시, 군들에서

소금생산성과 확대

원산제염소에서

달려나온 소금생산자대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2.1배에 달하는 소금을 생산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 소금생산지휘부에서는 전투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작전을 통틀어 크게 펼쳐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소금생산자들은 앞선 소금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올해에 지난해보다 첫 소금꽃을 열출이나 앞당겨 퍼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염소의 일군들과 제염공들은 소금생산에 유리한 날씨 조건에 맞게 총력을 집중하여 매일 수백의 소금을 생산하고있다.

고성강공장과 창도강산업리소의 소금생산자대원들에서는 중반과 결정지에서의 물 조절과 먼고구기 등 소금불반

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대로 진행하여 소금생산에서 앞장서나가고있다. 안변기초식품공장과 천내지구관련연합기업소의 소금생산자대원들은 제염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넣는 한편 자체의 힘으로 유리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중산투쟁을 즐기치게 벌려나가고있다.

각 군의 소금생산자대원들에서도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소금생산에서 날마다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신철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영광의 50년, 불멸의 당건설업적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전당의 사상적일색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돌이 다가오고있다.
장장 반세기에 이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우리 당령도사는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정스러운 혁명력사로 빛나고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으로 주체의 당건설과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서 세기적전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깊고 푸른 6월의 하늘가에 우리의 당기발이 힘차게 휘날린다.
우리 당을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세차게 나뭇가지에 당기발의 붉은 기복속에 어리어온다.
어느덧 50년세월이 흘렀다.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에 거룩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날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여 오신 장구한 로정은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건설하고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항도하는 필승불패의 령도적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 오신 자랑스러운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죽어가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 오신! 령도하는 장장 반세기가 넘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바로 여기에 수심성상에 걸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당령도사가 빛나고있으며 우리 당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전위대로 강화발전시키신 그의 영원불멸할 공적이 있다. 성스러운 그 부를 되새겨들 수록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가장 권위있고 전두력있는 선군혁명적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되

를 구상할수 있고 현실로 펼칠수 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의 역사적과제를 스스로 걸머지신 우리 장군님께서 그 실현을 위하여 얼마나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치셨던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후 어버이수령님의 로작들과 혁명전통교양도서들을 출판하는 사업,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으로 꾸리는 사업,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훌륭히 꾸리는 사업을 비롯하여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위대한 그의 세심한 지도밑에 전당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계승완성해나가는 위대한 당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내놓으시어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명을 주신 비범한 예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우리 당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영연히 높이 모실 데 대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대회 결정을 앞당기신 그의 나라에 차남처럼 환희, 그것은 김정은은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선군혁명전선리를 억세게 걸어나갈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다함없는 흥모와 크나큰 궁지에 넘쳐 창공높이 휘날리는 붉은 당기발을 우리 당의 총의와 사랑,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의 총성의 결정체인 혼연일체로 발전하였으며 그 불멸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은 승리와 영광을 떨치며 힘차게 전진하였다.

세상을 둘러보면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고 옳바른 지도리념이 없어 처음에 들었던 기발의 붉은색이 퇴색되고 변색된 당은 그 얼마였던가.
그러나 조선로동당의 기발은 세월의 광풍속에서도 어떤 퇴색도 변색도 모르는 붉은색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붉은색을 바라보시었다. 기발은 더 세차게 나뭇가지에

어디든 심신을 가지고 달려붙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과 기대에 거기에 보답하겠다는 결심만 든든하면 된다고 따듯이 이르시었다.
그 일군은 인민군대의 사상사업정형과 자기가 생각해보던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말씀하셨다.

인민군대의 사상사업은 전당과 온 사회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복속시킨다는것은 모든 군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수령님을 위하여 한복숨까지 써주는 투사들로 키우는데것을 의미한다.
인민군대사상사업의 주선과 총적목표를 명확히 받아안은 그 일군은 무한한 감격과 흥분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데 이어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할 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전당김일성주의화!
그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진행하고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의 선언이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계승완성해나가는 위대한 당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내놓으시어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명을 주신 비범한 예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우리 당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영연히 높이 모실 데 대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대회 결정을 앞당기신 그의 나라에 차남처럼 환희, 그것은 김정은은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선군혁명전선리를 억세게 걸어나갈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다함없는 흥모와 크나큰 궁지에 넘쳐 창공높이 휘날리는 붉은 당기발을 우리 당의 총의와 사랑,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의 총성의 결정체인 혼연일체로 발전하였으며 그 불멸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은 승리와 영광을 떨치며 힘차게 전진하였다.

세상을 둘러보면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고 옳바른 지도리념이 없어 처음에 들었던 기발의 붉은색이 퇴색되고 변색된 당은 그 얼마였던가.
그러나 조선로동당의 기발은 세월의 광풍속에서도 어떤 퇴색도 변색도 모르는 붉은색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붉은색을 바라보시었다. 기발은 더 세차게 나뭇가지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금지되고 무적 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백두산 혁명강군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런 귀중한 유산을 틀림없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입니다.》
주제 62 (1973)년 1월 19일 아침에 어느 날이었다.

인민군대는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이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위하는 혁명적무장력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군대의 존재자체를 생각할수 없다고, 인민군대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당의 결정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데 이어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할 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전당김일성주의화!
그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진행하고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의 선언이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계승완성해나가는 위대한 당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내놓으시어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명을 주신 비범한 예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우리 당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영연히 높이 모실 데 대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대회 결정을 앞당기신 그의 나라에 차남처럼 환희, 그것은 김정은은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선군혁명전선리를 억세게 걸어나갈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다함없는 흥모와 크나큰 궁지에 넘쳐 창공높이 휘날리는 붉은 당기발을 우리 당의 총의와 사랑,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의 총성의 결정체인 혼연일체로 발전하였으며 그 불멸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은 승리와 영광을 떨치며 힘차게 전진하였다.

세상을 둘러보면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고 옳바른 지도리념이 없어 처음에 들었던 기발의 붉은색이 퇴색되고 변색된 당은 그 얼마였던가.
그러나 조선로동당의 기발은 세월의 광풍속에서도 어떤 퇴색도 변색도 모르는 붉은색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붉은색을 바라보시었다. 기발은 더 세차게 나뭇가지에

인민군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의 일군으로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은 그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직무에서 일을 시작해보고나 어떤가고, 힘들지 않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때로는 웃음을 지으시고 때로는 궁정도 해주시며 그의 대답을 진지하게 다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처음 맡은 사업이 나 힘들수 있다고, 그러나 무슨

그 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시려는 의도하시는데로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바로 여기에 그 어떤 대적도 단면에 처부릴수 없는 백두산혁명강군을 받아안은 그 일군의 감동은 형언할수 없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나날 우리 인민군대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체질화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신 업적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의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들어주면 승리, 쫓아내면 패배

주제 84 (1995)년 6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제건설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에 계 자신께서 이번에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제건설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제건설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시었다.

선군정치의 뿌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의 뿌리를 같이 하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뿌리를 같이 하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뿌리를 같이 하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뿌리를 같이 하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순간에 포착하신 문제

주제 87 (1998)년 7월 어느날,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 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구분대의 교양실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책상위에 놓여있는 교양자료들을 보시던 그의 반면에 환한 미소가 어렸다. 교양자료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새기어 더붙어》의 내용과 혁명일화,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들도 적혀있었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계급교양자료들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건넌하면서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도



당의 품속에서 행복이 꽃피는 창가마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불빛 넘쳐흐른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길이 빛내여나가자

당중앙의 불빛 영원히 안고 살리!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역사가 시작된 뜻깊은 6월 19일이 50번째의 년를 새기며 우리앞에 왔다. 달력에는 명절이나 기념일로 표시 되어 있지 않지만 어버이장군님께서 당건설과 혁명발전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상징하는 뜻깊은 날로 천만의 가슴속에 새겨져있는 6월 19일!

하기에 6월의 달력을 번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서는 노래 《당중앙의 불빛》이 숨연한 추억속에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만을 자기의 정치적향도자로 인정하고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고있으며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다.》

당중앙의 불빛! 주체 53 (1964)년 6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장군님의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령도, 불같은 헌신의 세계를 구가하는 시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그리움의 불빛, 신념과 의지의 불빛이다. 당중앙의 불빛은 당과 혁명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헌신의 한생을 전하는 력사의 증언자이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 수령의 당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시고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세련된 령도로 당과 혁명대오를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켜오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상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작품을 발표하시어

우리 당과 혁명발전을 위한 고귀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셨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꺼질줄 모르는 영원한 승리의 불빛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당중앙의 불빛은 최후승리의 진로를 밝혀주며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한길을 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빨찌산식강행군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시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당중앙의 불빛, 우리를 수복, 그러볼수록 다함없는 그리움과 절대적인 신뢰심이 가슴속으로 차오르고 수령길사우위, 결사관철의 맹세가 불타오르게 하는 당중앙의 불빛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불빛이다. 당중앙의 불빛을 삶과 투쟁의 공적을 쌓아올린 령도자는 력사의 그 어느 폐지에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혁명발전에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당중앙의 불빛에 담아 시대의 송가로

경조높이 구가하고있는 것이다. 당중앙의 불빛은 단순히 추억의 불빛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꺼질줄 모르는 영원한 승리의 불빛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당중앙의 불빛은 최후승리의 진로를 밝혀주며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한길을 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빨찌산식강행군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시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당중앙의 불빛, 우리를 수복, 그러볼수록 다함없는 그리움과 절대적인 신뢰심이 가슴속으로 차오르고 수령길사우위, 결사관철의 맹세가 불타오르게 하는 당중앙의 불빛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불빛이다. 당중앙의 불빛을 삶과 투쟁의 공적을 쌓아올린 령도자는 력사의 그 어느 폐지에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혁명발전에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당중앙의 불빛에 담아 시대의 송가로

경조높이 구가하고있는 것이다. 당중앙의 불빛은 단순히 추억의 불빛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꺼질줄 모르는 영원한 승리의 불빛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당중앙의 불빛은 최후승리의 진로를 밝혀주며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한길을 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빨찌산식강행군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시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당중앙의 불빛, 우리를 수복, 그러볼수록 다함없는 그리움과 절대적인 신뢰심이 가슴속으로 차오르고 수령길사우위, 결사관철의 맹세가 불타오르게 하는 당중앙의 불빛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불빛이다. 당중앙의 불빛을 삶과 투쟁의 공적을 쌓아올린 령도자는 력사의 그 어느 폐지에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혁명발전에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당중앙의 불빛에 담아 시대의 송가로

경조높이 구가하고있는 것이다. 당중앙의 불빛은 단순히 추억의 불빛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꺼질줄 모르는 영원한 승리의 불빛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당중앙의 불빛은 최후승리의 진로를 밝혀주며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한길을 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빨찌산식강행군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시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당중앙의 불빛, 우리를 수복, 그러볼수록 다함없는 그리움과 절대적인 신뢰심이 가슴속으로 차오르고 수령길사우위, 결사관철의 맹세가 불타오르게 하는 당중앙의 불빛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불빛이다. 당중앙의 불빛을 삶과 투쟁의 공적을 쌓아올린 령도자는 력사의 그 어느 폐지에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혁명발전에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당중앙의 불빛에 담아 시대의 송가로

경조높이 구가하고있는 것이다. 당중앙의 불빛은 단순히 추억의 불빛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꺼질줄 모르는 영원한 승리의 불빛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당중앙의 불빛은 최후승리의 진로를 밝혀주며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한길을 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빨찌산식강행군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시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당중앙의 불빛, 우리를 수복, 그러볼수록 다함없는 그리움과 절대적인 신뢰심이 가슴속으로 차오르고 수령길사우위, 결사관철의 맹세가 불타오르게 하는 당중앙의 불빛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불빛이다. 당중앙의 불빛을 삶과 투쟁의 공적을 쌓아올린 령도자는 력사의 그 어느 폐지에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혁명발전에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당중앙의 불빛에 담아 시대의 송가로

경조높이 구가하고있는 것이다. 당중앙의 불빛은 단순히 추억의 불빛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꺼질줄 모르는 영원한 승리의 불빛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당중앙의 불빛은 최후승리의 진로를 밝혀주며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한길을 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빨찌산식강행군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시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당중앙의 불빛, 우리를 수복, 그러볼수록 다함없는 그리움과 절대적인 신뢰심이 가슴속으로 차오르고 수령길사우위, 결사관철의 맹세가 불타오르게 하는 당중앙의 불빛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불빛이다. 당중앙의 불빛을 삶과 투쟁의 공적을 쌓아올린 령도자는 력사의 그 어느 폐지에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혁명발전에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당중앙의 불빛에 담아 시대의 송가로

경조높이 구가하고있는 것이다. 당중앙의 불빛은 단순히 추억의 불빛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꺼질줄 모르는 영원한 승리의 불빛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당중앙의 불빛은 최후승리의 진로를 밝혀주며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한길을 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빨찌산식강행군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시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당중앙의 불빛, 우리를 수복, 그러볼수록 다함없는 그리움과 절대적인 신뢰심이 가슴속으로 차오르고 수령길사우위, 결사관철의 맹세가 불타오르게 하는 당중앙의 불빛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불빛이다. 당중앙의 불빛을 삶과 투쟁의 공적을 쌓아올린 령도자는 력사의 그 어느 폐지에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혁명발전에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당중앙의 불빛에 담아 시대의 송가로

경조높이 구가하고있는 것이다. 당중앙의 불빛은 단순히 추억의 불빛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꺼질줄 모르는 영원한 승리의 불빛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당중앙의 불빛은 최후승리의 진로를 밝혀주며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한길을 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빨찌산식강행군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시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당중앙의 불빛, 우리를 수복, 그러볼수록 다함없는 그리움과 절대적인 신뢰심이 가슴속으로 차오르고 수령길사우위, 결사관철의 맹세가 불타오르게 하는 당중앙의 불빛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불빛이다. 당중앙의 불빛을 삶과 투쟁의 공적을 쌓아올린 령도자는 력사의 그 어느 폐지에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혁명발전에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당중앙의 불빛에 담아 시대의 송가로

경조높이 구가하고있는 것이다. 당중앙의 불빛은 단순히 추억의 불빛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꺼질줄 모르는 영원한 승리의 불빛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당중앙의 불빛은 최후승리의 진로를 밝혀주며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한길을 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빨찌산식강행군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시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당중앙의 불빛, 우리를 수복, 그러볼수록 다함없는 그리움과 절대적인 신뢰심이 가슴속으로 차오르고 수령길사우위, 결사관철의 맹세가 불타오르게 하는 당중앙의 불빛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불빛이다. 당중앙의 불빛을 삶과 투쟁의 공적을 쌓아올린 령도자는 력사의 그 어느 폐지에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혁명발전에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당중앙의 불빛에 담아 시대의 송가로

경조높이 구가하고있는 것이다. 당중앙의 불빛은 단순히 추억의 불빛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꺼질줄 모르는 영원한 승리의 불빛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당중앙의 불빛은 최후승리의 진로를 밝혀주며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한길을 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빨찌산식강행군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시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당중앙의 불빛, 우리를 수복, 그러볼수록 다함없는 그리움과 절대적인 신뢰심이 가슴속으로 차오르고 수령길사우위, 결사관철의 맹세가 불타오르게 하는 당중앙의 불빛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불빛이다. 당중앙의 불빛을 삶과 투쟁의 공적을 쌓아올린 령도자는 력사의 그 어느 폐지에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혁명발전에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당중앙의 불빛에 담아 시대의 송가로

만 년 로 대

◇ 다함없는 청송의 목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기념예술회의 강연회에서 울려나온 목소리를 들어보자. 《김정일령도자의 당령도사는 뛰어난 정치적 실력으로 조선민족과 인류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불멸의 력사이다.》 이것은 기념의 한 교육자의 심정만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물론 온 세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세상에겐 정당도 많고 정치가도 많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 령도자, 우리 당처럼 고귀한 전통으로 빛나는 당은 없다. ◇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만년토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율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종업과 위업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장장 수십성상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은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기울여오신 그이의 헌신과 로고는 1970년대 중엽에 몸소 보여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전당에

일반화하도록 해주신 안주군당위원회(당시) 일군들의 항일유격대식배낭에도, 신천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에게 군중속에 들어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40년전의 잊지 못할 농촌의 밭길에도, 충성의 당세포의 본보기인 조선중앙통신사 5주 2세로 당원들에게 보내주신 친필서한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토대로 하고있기에 존엄높고 위대한 필승불패의 당, 승리의 상징으로 누리에 빛을 뿌리는 조선로동당의 오늘이 있으며 매일의 영원한 승리로 담보되는것이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각각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저히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조직사상생활지도를 적고되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어 이끌어주어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본태를 더욱 살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만년토대인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임으로써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이다.

한몸을 강그리 불태우는 일군이 되기 위해 애쓰고있다. 모든 사업을 오직 장군님식대로 해나가기에 애쓰는 당일군들 가운데는 단숨에 정신으로 불과 2년동안에 군을 사회주의의 길로 천지개벽시킨 혁명군대 책임일군도 있고 불리한 자연조건에서도 많이 애쓰고 뛰고 또 뛰며 지방산업공장들을 활성화하여 전국의 본보기군으로 만든 연안군 책임일군도 있다. 지난 시기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방대한 일감을 1년동안에 해쳐 구역의 면모를 일신시킨 서성구역당 책임일군들도 있고 남지 않은 순간에도 큰분회를 완전히 막기 위한 관계공사와 발전소공사를

현장에서 지휘한 전 금야군당 책임비서도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나시었던 숭고한 인민편을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미더운 일군들이 무성 한 숲을 이루고있다. 후방사업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활성화 함으로써 보급 기업소를 종업원들의 정든 소박 자로 만들어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남흥청년화합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 고난의 시기 압록강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리게 하였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기에는 백만 점포성으로 온 나라를 들끓은 3월5일청년광선의 책임일군...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은 나라에 울리는 오늘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당일군들이 대중의 정찬한 어머니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품도, 투쟁방식과 령도예술을 그대로 복현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장군님식대로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당일군들의 심심은 드높고 발걸음은 여덟다. 모든 사업을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식대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전체 당일군들의 변함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 향 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린 불멸의 혁명적업적을 가슴깊이 새겨다. -신천군 새날농장에서- 본사기자 김 중 훈 찍음

이 나라의 첫새벽에 대한 생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결속한 령도자이시며 희세의 정치영도이십니다.》

새날이 돌러올수록 수도의 거리에 나섰을 때였다. 평양역 앞을 지나고있는데 역사의 시계탑에서 장중한 종의 울림과 더불어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율이 울려 퍼지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다가오는 때여서인가 그 노래선율은 새한 격정의 파도를 일으키며 가슴뜨거운 추억을 불러오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바로 다음날 새벽이였다. 전일 사무실에서 한밤을 꼬박 새우시며 정열적으로 일하시다가 새벽

을 맞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새벽공기를 마시니 피곤이 다 풀린다고, 새벽공기는 혁명가들이 남던져 마시게 된다고 하시면서 새벽공기와 관련한 찬오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불요 불굴의 혁명 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시느라고 늘 새벽이슬을 밟으시며 남던져 새벽공기를 마시곤 하신 이야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대원들을 다 잡게우시고는 조국해방을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느라고 등잔불심지를 들구시며 밤을 지새우시고 새날을 맞이하신 이야기...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겠, 이것이 자신의 필생의

과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력사의 그 새벽과 더불어 이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장장 수십성상은 그날의 비범한 의지가 어떤 승리와 기적의 년대기를 안아왔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격정없이 추후할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수십성상을 되새겨보느니 평양역사의 시계탑에서 울려 퍼지는 새날의 첫 울림-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율은 우리 우주의와 같은 거대한 무게로 가슴에 새겨졌다.

그렇다. 6월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새날의 첫 울림, 나에게겐 그것이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는 시대의 메아리로,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천만신장의 신념과 의지의 불꽃로 안겨왔다. 본사기자 리 정 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출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농업부문의 당조직들이 부글 부글 끓고있다. 사리원시 미곡, 재명군 삼지강, 통천군 신암, 함주군 동봉협 등 농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협동농장의 당조직들이 농업근로자들의 정진력을 총괄시켜 당면한 영농투쟁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하고있다.

모든 사업을 장군님식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혁명적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정신공포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방법은 우리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귀감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투쟁방식, 혁명방식, 령도방식을 따라배우자, 그이의 고매한 품도를 그대로 닦자!

이것은 오늘 우리 당일군들의 삶과 투쟁의 최후명이다.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다 바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았고 순간의 후회도 없이 조강도강행군을 이어가시다가 멀리서 열차에서 순직하신 장군님과 같은 그런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었고. 빨찌산식 강행군, 눈보라 강행군, 심야강행군, 삼복철 강행군...

생각만 해도 절세의 위인의 눈물겨운 헌신이 눈앞에 어둠과 걱정을 자아내는 이 위대한 시대를 늘 의 무며, 우리 장군님의 아연송곳에 자신의 투쟁과 생활을 비추어보며 전당의 당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을 강그리 불태우는 일군이 되기 위해 애쓰고있다. 모든 사업을 오직 장군님식대로 해나가기에 애쓰는 당일군들 가운데는 단숨에 정신으로 불과 2년동안에 군을 사회주의의 길로 천지개벽시킨 혁명군대 책임일군도 있고 불리한 자연조건에서도 많이 애쓰고 뛰고 또 뛰며 지방산업공장들을 활성화하여 전국의 본보기군으로 만든 연안군 책임일군도 있다. 지난 시기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방대한 일감을 1년동안에 해쳐 구역의 면모를 일신시킨 서성구역당 책임일군들도 있고 남지 않은 순간에도 큰분회를 완전히 막기 위한 관계공사와 발전소공사를

현장에서 지휘한 전 금야군당 책임비서도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나시었던 숭고한 인민편을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미더운 일군들이 무성 한 숲을 이루고있다. 후방사업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활성화 함으로써 보급 기업소를 종업원들의 정든 소박 자로 만들어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남흥청년화합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 고난의 시기 압록강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리게 하였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기에는 백만 점포성으로 온 나라를 들끓은 3월5일청년광선의 책임일군...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은 나라에 울리는 오늘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당일군들이 대중의 정찬한 어머니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품도, 투쟁방식과 령도예술을 그대로 복현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장군님식대로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당일군들의 심심은 드높고 발걸음은 여덟다. 모든 사업을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식대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전체 당일군들의 변함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 향 탄

불멸의 령도업적을 천만의 심장속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각지 당조직들은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천만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더욱 박력있게 진행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적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자기 단위에 깃들여있는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문화성당위원회에서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령도업적단위답게 잘 꾸리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이 곳 당 조직에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성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문화성혁명사적관 참관을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주제문학에 출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안도록 하였다.

참관을 통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밑에 이룩된 주제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심장깊이 새겨다. 피바다카구단, 국립연극단 당 조직들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지도로장관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이밖에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과학원 당 조직들에서도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단위에 깃들

어있는 장군님의 혁명적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함경남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일군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작품들에 대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황해남도과 평안남도의 당일군들은 모내기 전투로 들끓는 농장밭들에 달려나가 김정일애국주의교양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진행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어버이장군님의 넉넉한 현실로 꽃피어나가도록 하고있다.

뜻깊은 6월에 들어서 더욱 활력있게 진행되는 각지 당조직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하여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천만의 심장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으며 위대한 당을 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그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승리와 영광의 자욱만을 아로새겨 온 조선로동당의 력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여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당창건기념탑에서- 본사기자 찍음

아버이장군님의 념원 철령아래 사과바다로 펼쳐가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 1뿔을 맞는 고산과수농장에서

맹세를 실천으로 빛내여온 충정의 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6월 초 모소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셨던 영광의 그날로부터 어엿 1년이 흘렀다. 이 불같은 날과 달에 여기 철령아래에는 618건설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눈부신 전변이 이루어졌다.

수집보석의 토지정리와 파수원보수, 16만 8천여대의 콩크리트지지대세우기, 260여정도의 과일나무심기를 진행하고 50여개소의 용배수구조물과 30여km의 구상상수망공사, 500여세대의 살림집과 50동의 공공 및 생산건물건설을 완공...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하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그 믿음은 돌격대원들의 가슴을 혁명열, 투쟁열로 더욱 세차게 끓게 하였다. 모두의 심장마다 뜨겁게 맥박치는 완공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풍요한 사과바다가 펼쳐진 사회주의정촌과 일애 모시고 승리의 보고, 완공의 기쁨을 드릴 일념이었다.

우리의 앞길에 시련과 난관은 있을지언정 절망 못할 요새란 없다. 맹세는 오직 실천으로!

현장지휘부일군들이 이런 각오로 대담한 작전을 펼치었다. 대상별, 공종별에 따르는 전투목표가 정해지고 리더, 대대, 소대별 사회주의정촌이 조직되었다. 방충선전차, 기동예술선동대를 비롯한 선전선동력량이 전투장소에 시급히 전개되었다. 모든 일군들이 사상의 무기를 메고 목적의식적으로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밀물이 되었다.

토지정리전투에서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각 리더의 일군들이 빈틈없는 작전과 지휘, 드센 사상공세로 전투승리의 담보를 마련해가는 속에 돌격대원들은 집단적헌신의 불길높이 높고있는 열의를 보였다. 이틀만에 이룬 다른 리더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대동적응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가며 날마다 실적을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건설총계획에 반영된 토지정리전투과제를 지난 2월까지 승리적으로 계속 하고 또 하나의 파수발을 새로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결사투쟁의 정신, 백철 불굴의 투쟁기풍은 용배수공사장에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평안북도리단 구성시대대가 맡은 용배공사에 휘둘러놓은 난관이 조성되었을 때였다. 일군들은 돌격대원들과 마주 앉았다.

기적창조의 원천 - 자력갱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해내야만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판례에 산

26만 4천여대의 콩크리트지지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량강도공업연합기업소련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전투를 벌였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대동적응응주의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새롭게 지퍼올려 실정에 맞는 새형의 콩크리트지지대생산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였다. 많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철근조립속도를 종전보다 훨씬 높일수 있는 혁신안과 건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고 당일에 다진 맹세를 실천으로 지켜온 백두산화산용사들의 결사투쟁의 정신이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력지지점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범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백두산화산용사들의 심장마다 불이 달랐다.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를 아버지장군님께서 정해주신 날자에 무조건 완공하여야 한다고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7동의 공장건물조공사를 끝내고 5000여㎡의 벽체미장을 완성하였다.

토지정리, 도로공사, 배수 및 용수구조물공사, 용배와 상수망공사, 송전선들이기...

그들이 1년동안 해놓은 일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돌격대원들은 이 1년동안에 남음이 몇년동안에 할수 있는 많은 일을 해놓았으며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본모기를 창조하였다.

한 유명한 작가는 《보람차게 보낼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위

대한 일을 완성하는데 부족하지 않음만큼 길다.》라고 말하였다.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놓은 일도 같은것이 아니다. 흘러보낸 시간의 향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투기한 시간의 이해에 사람의 삶의 질이 평가되어야 한다는것을 고산의 1년은 보여주 고있는것이다.

어떤 사람이 남보다 일을 3배 하면 그는 1년동안에 1095일을 살수 있다. 당의 믿음에 불굴의 실천으로 보답하려는 열의만 있다면 1년에도 1000일을 살수 있다.

그렇다, 고산의 1년은 결코 365일이 아니다. 그것은 수천일이여 여러개의 365일이다.

고산의 돌격대원들처럼 1년을 3년, 10년 맞잡이로 여기며 싸우다면 우리의 행복한 미래는 얼마나 빨리 오게 될것인가.

정녕 고산의 1년은 위대한 김정일시대를 어떤 위훈으로 빛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투쟁의 교재이며 천만군민을 최후 승리를 위한 돌격전으로 부르는 세월의 기발이다.

510여 t의 환강

강동군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건설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불가늠을 모르는 환강한 공격전으로 환강생산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켰다.

특히 이들은 새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일일실용이 되어 노력한 결과 압연롤이 개조되어 지지대생산에 필요한 규격의 환강을 생산보장하게 되었다.

618건설돌격대 현장지휘부 일군들이 현장에 자주

104만매의 기와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면서 원료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웠다.

제함을 받고 분발해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기대 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대동적응응주의의 불길을 힘있게 벌려 104만매의

기와를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투쟁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기적창조의 원천이 자력갱생하는데 있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긴 군인건설자들은 기세를 높이지 않고 계속 투쟁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투쟁이 있다.》

1년은 365일이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다면 고산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워가고있는 618건설돌격대의 미려한 전투원들, 그들도 다름없어 365일을 사는것이다.

고산에서 1년은 사계절로 흘렀다.

6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수필

고산의 1년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7동의 공장건물조공사를 끝내고 5000여㎡의 벽체미장을 완성하였다.

토지정리, 도로공사, 배수 및 용수구조물공사, 용배와 상수망공사, 송전선들이기...

그들이 1년동안 해놓은 일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돌격대원들은 이 1년동안에 남음이 몇년동안에 할수 있는 많은 일을 해놓았으며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본모기를 창조하였다.

한 유명한 작가는 《보람차게 보낼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위

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에 큰 힘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기력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밭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는것입니다.》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파수와 축산, 축산과 파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움으로써 파수밭에 유기질복합비료를 대대적으로 내어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선군혁명명도의 상징인 철령의 기슭에 풍요한 사과바다를 펼쳐가자.

이런 심장의 맹세를 안고 더욱 분발해나선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말 새로 일떠세운 돼지공장들에서 축산물과 물거름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한사칼같이 떨쳐나섰다.

농장일군들이 그 앞장에 섰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 돼지마리수를 부쩍 늘일 높은 목

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면서 사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수의방역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었다.

농장에서는 여러가지 예방약을 충분히 해결하고 수의방역사업을 책임진 종업원이 해당 시기에 따르는 집중을 제때에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돼지공장의 주변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여 병충해막이대책도 세워놓았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종자돼지의 증체률을 처음보다 10배이상 높이고 새끼생산도 시작할수 있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농장에서는 돼지배설물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힘을 넣었다.

또한 공장주변의 빈땅을 빼집없이 찾아내어 일정한 량의 먹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아 가까운 앞날에 우리가 돼지공장이 하루빨리 육식거르게 배우고 서로의 경험도 교환하

면 후날에도 손색없게

지강도리단의 어느 한 대대 돌격대원들이 건물내부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던 어느날이었다.

작업장들을 차례로 돌아보면 대대장 남중철동무는 목욕실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3소대장 량영호동무와 돌격대원들이 타일붙이기를 앞두고 무슨 론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알고보니 선택과 형태가 각이한 타일들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면서 목욕실의 특성을 더 잘 살릴수 있는 방도를 찾고있었다. 사실 무늬만 맞추면서 면이 고르롭게 타일을 붙인다고 해서 그들을 닦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건물을 먼 후날에도 손색없게 건설할 결심이 자리잡고있었던 것이다.

대대장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날 저녁 그는 3소대원들의 일본새를 높이 평가하고 먼 후날에도 손색없게 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할것을 호소하였다.

다음날부터 소대들사이에는 경쟁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났다. 리발실을 맡은 2소대에서

는 리발도구와 손님들의 옷보관함의 연결부위를 미학적으로 잘 처리하면서도 리용하기 편리하게 완성하였다. 한편 1소대의 돌격대원들은 옷수리실바닥에 구를을 새로 놓아 주어 추운 겨울날 근로자들이 훈훈한 방에서 일할수 있게 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기업소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돌격대원들은 한달동안에 20여개의 출입문과 10여개의 창문들을 대상의 용도에 맞게 제작완성하였다. 건물입구의 벽에 새길 《종합편의》라는 글자의 획과 규격을 놓고서도 열띤 론쟁을 벌였고 지혜를 합쳐갔다. 량사리의 종합편의건물은 이렇게 완공되었다.

하기에 오늘 이 고장 사람들은 돌격대원들의 깨끗한 향심과 간질 일본새를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이런 일본새와 투쟁기풍은 618건설돌격대의 그 어느 단위에서나 찾아볼수 있고 고산땅에 새로 일떠세운 창조물마다에 그대로 비껴있다.

글 및 사진 현지도보단

당의 구상따라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되는 굴지의 대과수농장



고산과수농장마을의 일부



고산과수농장에 건설된 돼지공장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가고있다.



희한하게 펼쳐진 과수밭을 바라보며 청춘의 보람과 긍지를 찾는 돌격대원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기와생산을 다그치고 있다.



대량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친다. 고산과수농장에 건설된 편의봉사기



희한하게 펼쳐진 과수밭을 바라보며 청춘의 보람과 긍지를 찾는 돌격대원들

